

# 은총's Letter - 3월

따뜻한 햇살과 찬바람이  
함께하는 봄이 왔습니다.  
매년 변함없이 피는 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는 시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최근 근황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요즘이지만, 벌써 꽃이 피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봄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인 요즘이지만, 따뜻하게 웃 쟁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식을 나누면, 벌써 전임간사로 시간을 보낸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포항에서 비전선교단 공동체에서 함께 살며, 주로 한동대 학생들 섬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전선교단이 학교 동아리로 등록되어, 동아리원들 리쿠르팅하고 들어온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제자양육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여러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매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내용이 없는 저 이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양육 같은 페어와 함께>

특히, 저는 한동대 재학시절에 새벽예배 공동체를 섬기면서 실패감과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해야하고 많은 사람들을 신경써야 했기에, 은연중에 저의 마음이 사역자체와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곤 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기 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신경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와 닿았던, 최근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약속된 가나안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보내어 그 땅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광야와 산에서 불편하게 생활했던 모세에게 있어 편하게 약속된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꽤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사역의 성공을 우선시 했다면 좋다고 대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 출33:15

모세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현실이 곧 바로 해소될 수 있음에도 그는 불편한 광야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원합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약속된 땅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사역적 성공이 눈 앞에 있었지만, 멀리 돌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합니다. 저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길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면 광야라도 기쁘게 선택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역과 열매를 우선시 하기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더 갈망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광야에서의 불편함이 크게보일때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을 놓치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시간들이 더 힘들게 느껴져 주님 한분만을 기쁨으로 바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아리 밥고 후 산책하면서>

## 기도 제목

1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알아, 주어진 시간과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가는데, 이들과 또 알려지진 않지만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해주세요

## 추신

\*개발자를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있지만 배웠던 개발지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에서 저희 비전선교단에 홈페이지 제작을 요청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www.kwmc2022.org](http://www.kwmc2022.org)

\*혹시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나눠주세요. 주님을 위한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연락처 010-9674-7290)

저는 비전선교단에서 전임간사(예비선교사)로 훈련받으며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선교(Faith Mission)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열방을 향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

Thank you for your prayers

PDF로 저장

사진으로 저장